광주시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 부담 크다

하수도요금 올 8.56% 인상…2년만에 또 올라
택시요금은 지난 1월 5년만에 17.8% 인상

택시요금에 이어 하수도 요금도 2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부담이 우려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하수도요금 인상은 2년 만이다. 올해 8.56%를 인상하고, 2020년 8.48%, 2021년 8.64%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은 월 20t 기준 사용시 현재 6000원에서 6600원으로 600원이 오르게 된다. 전국 6대 광역시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평균 9160원으로 광주가 3160원이 낮다.

목욕탕용은 월 1000t당 현재 42만원이며 4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타 광역시 평균은 55만8200원으로 광주시가 13만8200원이 낮다.

산업용은 월 500t당 27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2만5000원이 오른다. 타 광역시 평균은 31만8000원으로 광주가 4만8000원이 낮다.

일반용은 월 20t 기준 월 9200원에서 1만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타 광역시는 평균 1만5260원으로 광주가 6060원이 낮다.

하수도요금 인상분은 물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조례 개정 후 10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28.38% 인상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금 조정에도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매년 손실액이 발생해 2년 만에 다시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노후 하수도관 개선, 신규시설 투자 등의 이유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최소한으로 인상요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5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중형택시 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8% 올랐고, 거리와 시간도 145m·35초당 100원에서 134m·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 3900원에 156m·36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달빛동맹 신고 '228 버스' 달린다

〈대구민주화운동 상징〉

광주시 5월 18일부터 지원151번→228번 변경 운행

광주시는 달빛동맹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대구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228버스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228 버스 운행은 대구시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대구 2·2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버스 운행'을 제안하며 추진됐다.

지난 2013년부터 양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대표단이 번갈아 참석하며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민주화 역사 연대'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518'과 '228'은 각기 광주와 대구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숫자다.

광주시는 광주 4·19민주혁명의 진원지인 광주고와 5·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로 지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등 역사적 장소 10여 곳을 운행하고 있는 지원151번을 228번으로 변경해 운행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지원151번은 10대의 버스가 화순부터 서구 동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까지 1일 79회 운행되고 있다.

주요 경유지는 화순과 주남마을, 전남대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대인시장, 광주고, 4·19 기념관, 무등경기장, 광천터미널 등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6일 광주에서 열리는 '228 번호 명명식'에 참석하고 광주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액·상습 체납자 광주시, 가택 수색

500만원 이상 대상 5월 실시

광주시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명품가방·명품시계 등의 동산이 드러나면 현장에서 압류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가택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만 145억3200만원에 달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민안전의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서 민세은(왼쪽 네번째), 정예헌 학생, 국민대표들과 함께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든다

6대 광역시 중 최초…15년 이상 경과 732단지 25만가구 대상

광주시가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대상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개 단지 25만1793가구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을 만들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는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이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광주시 '도시재생박람회' 광주역 뉴딜사업 등 홍보

5개 자치구 공동 부스 설치

광주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과 산업을 접목한 박람회다.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을 주축으로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학술세미나,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상상플랫폼'은 사료로 쓰는 곡물과 고철 등을 실어 나르던 인천항 8부두의 낡은 곡물창고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재생과 산업을 접목시킨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행사 장소인 '상상 플랫폼'은 CJ CGV(주)가 300억원을 투입해 엔터테인먼트 시설, 최첨단 영화관, 청년 창작공간 등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이번 산업박람회에서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한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동구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서구 별마루 발산마을,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북구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광산구 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 성과와 계획을 홍보한다. 또 7월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스코트 수리·달이와 함께 하는 현장 홍보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 135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 기업 등 전국 2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수영대회 홍보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대변인 성백유씨 선정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대변인으로 성백유(59·사진)씨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 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 브리핑과 조직위 홍보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 출신인 성 대변인은 고려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체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대변인, SBS 스포츠채널 총괄국장, 중앙방송JTBC골프채널 본부장 등을 지냈다. 조직위는 신임 대변인을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임명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